

광주서 국내 최대 ‘박물관·미술관 박람회’ 열린다

문체부 주최 제2회 박람회 유치
9월4~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중앙박물관·현대미술관 등 참여
포럼·체험행사·지역투어 등 다채

오는 9월 광주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박물관·미술관 박람회’가 열린다.
광주광역시시는 ‘2025 광주방문의 해’를 맞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 ‘제2회 박물관·미술관 박람회’를 유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9월4~7일까지 나흘동안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람회는 ‘급변하는 공동체 속 박물관 미래’를 주제로 국내외 박물관·미술관의 역할과 미래 비전을 조명할 예정이다.
국립중앙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공·사립 박물관·미술관과 관련 산업체, 문화기획사 등이 다수 참여한다.
행사는 기획전시, 포럼·강연, 체험행사, 실감콘텐츠, 비즈니스, 박물관·미술

관 기념품 판매 등 전시·체험·산업을 아우르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박람회에서는 고(故) 이병철 삼성 회장 등 수집가들의 소장품을 재구성하는 등 그들의 생전 수집 활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대중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박람회에서는 ICOM(국제박물관 협의회)의 주제를 반영한 글로벌 박물관 트렌드를 소개하고, 인공지능(AI)·저출산·고령화·다문화 등 사회 변화와 박물관의 접점을 모색하는 전문가 강연·국제 세

미나도 함께 열린다.
또 국내외 박물관·미술관 관장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시는 이번 박람회와 함께 도심형 체험 전시와 연계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람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광역시시는 대한민국 3대 문화시설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민주화역사관의 광주 설립, 국립현대미술관 광

주관 유치,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건립 등을 추진하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도약을 위한 문화 기반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올해 광주에서 열리는 박물관·미술관 박람회는 광주의 문화감성에 신기술과 세계적 담론을 결합한 새로운 문화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국내외 관람객의 이목을 사로잡고, 광주의 미래 문화를 함께 그려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정상이 기자 sangajeong@jnilbo.com

전남도, 먹깨비와 사랑에 서포터즈 이벤트

신규가입자 쿠폰 지급 이벤트
할인가맹점 확대 등 혜택 강화

전라남도가 공공배달앱 ‘먹깨비’와 협력해 12일부터 수도권 청년층과 엠지(MZ)세대(20~30대)를 겨냥한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홍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먹깨비 앱 이용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사랑에 서포터즈에 신규 가입한 이용자에게 3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총 쿠폰 규모는 약 1000만 원으로 선착순 지급되며, 앱의 배너와 팝업 등을 통해 이벤트를 홍보한다.
116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공공배달

앱 먹깨비는 전남지역 1만3000여 가맹점과 하루 평균 7000건 이상의 이용 실적을 기반으로 전남 외 지역 소비자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먹깨비 입점 업체를 중심으로 서포터즈할인가맹점 모집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할인가맹점 모집 시범사업을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는 620여 제휴 가맹점 할인과 남도장터 쿠폰, JN투어 숙박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임산부·출산가정에 농산물 무상 제공

선착순 1000가구 대상 지원

광주광역시시는 임산부와 올해 아이를 출산한 가정을 위해 전남지역 지리적표시 농산물을 무상 제공하는 행사를 12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행사는 임산부와 출산가정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재)광주여성가족재단과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임산부 또는 올해 1월1일 이후 출산한 가정이며, ‘광주아이키움’ 플랫폼을 통해 간단한 퀴즈를 풀고 임신확인서, 아기수첩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착순 100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전남지역 지리적표시 농산물 5종 세트(2만원 상당)를 무상 제공한다.
지원 품목은 전남의 대표 지리적표시 농산물 5종 세트로 △영광 고춧가루 △보성 울버찰누룽지 △여수 돌산갓김치 △곡성 멜론 △영광 모싯잎송편 등이 무작위 조합으로 구성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서 각 가정으로 직접 배송한다.
광주광역시시는 앞서 지난달 10일 이번 사업의 시행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광주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임산부 대상 지리적표시 농산물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상이 기자

전남도의회, 시군별 맞춤 인구감소 해법 모색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전라남도의회 ‘지역 및 인구감소 대응 연구회는 최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라남도 시군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 개발 연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연구에 나섰다.
이번 연구용역의 과업 내용은 △시군별 인구구조 변화 및 인구감소 원인 도출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맞춤형 모델 연구 △맞춤형 모델에 따른 재정 확충 방안 마련 등이다. 해당 연구는 전남연구원 김대성 사회문화연구실장이 용역을 맡아 약 4개월간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회 회원, 수행기관, 도의회 지역소멸·인구감소대응 TF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대성 실장의 연구용역에 대한 과업의 세부 범위와 수행 내용, 추진 일정에 대해 청취 후 질의응답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현창 대표 의원은 “전라남도는 지금 ‘줄어드는 인구’를 넘어 ‘사라지는 마을’과 ‘무너지는 공동체’라는 절박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며 “그동안 지자체 간 ‘인구 쟁탈전’에 집중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남만의 ‘인구활력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전남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출발점이다. 전남 22개 시군의 각기 다른 원인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지역별 맞춤형 인구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회는 이현창(구례)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태균 의장(광양3), 서동욱(순천4), 박선준(고흥2), 이규현(담양2), 김재철(보성1), 김화신(비례), 모정환(함평) 의원 등 총 8명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광주 동구 제350차 안전점검의 날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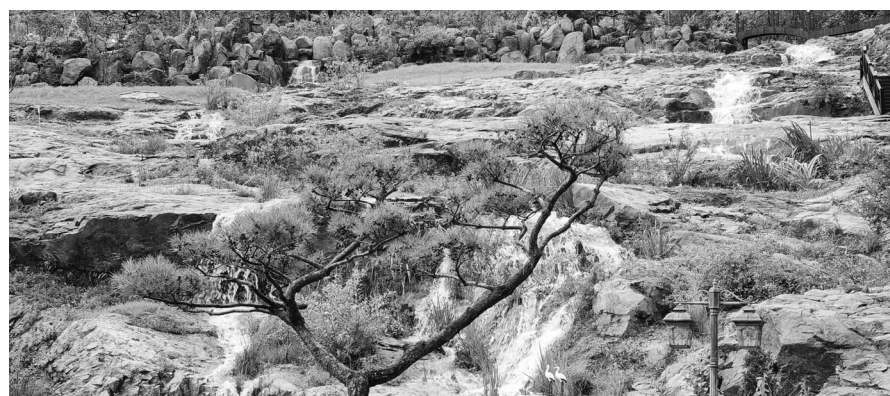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12일 동구 금남로공원에서 제350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안전모니터봉사단 광주시연합회와 함께 도시공원 산책로 안전점검 활동을

광주 동구 제공

전남도, 제28호 민간정원 ‘해남 비원’ 개방

예쁜정원 콘테스트서 대상 수상
한울·바위·바람 등 5개 주제 정원

전라남도도는 제28호 민간정원으로 등록된 ‘해남 비원(祕園)’ 정원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정식 개방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남 삼산면에 위치한 ‘비원(祕園)’은 주변 숲과 마을 들판 경관이 잘 어우러져 자연 지형을 최대한 살려 조성한 정원이다. 앞쪽에는 옥산, 뒤쪽에는 우달매골이 자리해 야트막한 산들로 둘러싸여있으며, 옛 마을의 산비탈 아래 다랑이논의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김미정 정원주는 지난 2006년 고향 해남에 귀향해 가꾼 정원을 지역민과 정원마니아 등에게 개방하는 ‘해남 비원’ 여는 날 행사를 지난 2일 진행했다.
김씨는 “2024년 전남도 예쁜정원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아 그 영광을 지역민과 나누고자 민간정원 등록을 추진, 정식으로 개방하게 됐다”며 “해남의 보석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정원을 지역민과 함께 상생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원 규모는 1만769㎡로, 정원주가 직



전라남도 제28호 민간정원인 ‘해남 비원’ 정원 모습.

전남도 제공

접 나무와 화초를 구해 심고 가꾸 팽나무, 느릅나무, 철쭉, 매화, 목서, 모과 등 7000여 종의 다양한 식물을 만날 수 있다.
한울정원, 바위정원, 바람의 정원, 수국동백정원, 장미정원 등 5개 주제 정원의 배치가 돋보인다. 시그니처 정원인 ‘한울정원’은 ‘바른 우리의 터전’이라는 의미다. 낮은 언덕과 연못, 굽이굽이 펼쳐진 산책로, 사계절 내내 산 위에서 시원한 물줄기 떨어지는 폭포가 있다.
비원에는 바위정원과 연결된 총 9개의 크고 작은 연못이 있으며, 바위정원을 따

라 정상에 오르면 ‘바람의 정원’을 만날 수 있다. 이곳에서는 비원의 전경과 남쪽으로 넓게 펼쳐진 들판을 볼 수 있으며 날마다 빛깔이 다른 노을 풍경을 선사한다.
바람의 정원 옆으로 볼 수 있는 2000여 평의 너른 땅에는 수국과 동백이 꽃피우는 ‘수국동백정원’이 위치해 있으며 여름에 푸른 수국 꽃이 청량감을, 겨울에는 붉은 동백이 마음 따뜻함을 선사한다.
바람의 정원을 내려와 ‘별빛전망대’에서 시작되는 60미터의 ‘장미정원’에는 향기로운 온갖 종류의 장미꽃이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집 식중독 검사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어린이집 급식소에서 제공되는 조리식품과 간식류 등을 대상으로 16일까지 5일간 식중독균 검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영유아는 성인보다 식중독균 면역력이 약하고, 단체생활을 통해 감염이 쉽게 확

산할 수 있어 식품위생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어린이집 급식소 수거검사는 시군 위생부서의 위생 지도·점검과, 실제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식품에 대한 식중독균 오염 여부 검사 등으로 이뤄진다. 위생상

태를 가능할 위생지표균(대장균)에 대한 검사도 진행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식품과 간식류가 제공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품은 신속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 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 및 보고해 즉시 급식중단과 폐기조치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